

# 和諍, 이견을 소통으로 이끄는 과정



원효의 혜안-화쟁(2)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언어를 통한 동일성과 배제성 확보, 견해의 무조건화와 절대화는, 이처럼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한다. 2500여 년 전에 펼쳐진 언어들은, '사유와 욕구가 언어와 한 몸처럼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언어적 삶'과 '언어를 통한 이익 관철과 승리'를 추구하는 길을 인간이 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래서인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영성들은 흥미롭게도 인간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들을 쏟아낸다. 특히 붓다와 노자, 장자는 언어에 대한 유사한 혜안을 펼친다.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이익의 배타적 관철을 위해 언어적 허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추어내는 동시에 그 언어 환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일러준다. 그 중에서도 붓다의 혜안은 그 철학함과 체계성에서 단연 으뜸이다. 그는 연기(緣起, 조건에 의한 발생) 통찰에 의해 개념 언어의 무본질·무실체성과 견해의 조건성을 밝혀줌으로써 언어 환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

### 異見을 꺼안을 수 있는 길

그로부터 약 1200년 지난 한반도. '언어로 싸우는 인간'을 치유하려는 위대한 영성의 빛 한 줄기가 다시 밝아진다. '다투는 견해(諍論)들을 꺼안아 치유하려는 화쟁(和諍)의 스승 원효(元曉, 617-686). 그가 황홀한 언어치유의 춤을 춘다.

언어를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언어 인간이 된 이후, 싸움은 불필요하게 커지고 격렬해졌으며 잔인해졌다. 싸워야 할 이유와 동력을 언어에서 얻게 된 인간은 적개심을 무한히 증폭하고 장기화시킨다. 이 모든 언어적 투쟁에서 활약하는 것은 언어규정의 동일성과 배제성, 그리고 견해의 무조건화·절대화이다.

싸우는 인간의 언어적 투쟁에서, '다른 견해(異見)는 갈게 만들거나(동일화) 소거해야 할 대상이며(배제), 무조건적·절대적으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이처럼 동일화와 배제, 무조건화·절대화의 태도를 지니고 만나는 것이 쟁론(諍論)이다.

다른 견해들을 편입적 정복이나 소거적 승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길이 있을까? 그런 길을 내려면 오래되고 강력한 언어적 관철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역행(逆行)과 자유가 가능할까? 원효는 '견해의 문(門) 구별'에서 그 실

마리를 잡는다. 원효 시대의 한반도에는 다양, 다층의 불교이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었고, 불교 지식들은 그 다채로운 이론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수립하여 개진하였으며, 그것은 흔히 이견(異見)들의 쟁론으로 이어졌다. 원효 사후 그의 삶에 대한 최초의 평전적 기록으로 보이는 '서당 화상비(誓幢和上碑)'는 그때의 정황을 이렇게 전한다.

"(화상의 저술) 가운데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은, 여래가 세상에 계시 적에는 온전한 가르침(眞言)에 의지하였지만, 중생들이 ... 빗방울처럼 흠뻑리고 헛된 주장들이 구름처럼 내달리며,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타당한데 다른 사람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그 상이한 견해들의 배타적 주장이) 황하(黃河)와 한수(漢水)처럼 큰 강물을 이루었다. (흐름 싫어하고 유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산을 (버리고) 골짜기를 돌아가는 것과 같고, 유(有)를 싫어하고 공(空)을 좋아하는 것은 나무를 버리고 큰 숲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청색과 남색은 바탕을 같이하고, 열옴과 물은 근원을 같이하며, 거울은 모든 형상을 받아들이고, 물이 (수천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

차이가 존중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방식을 '소통'이라 한다. 차이를 정복하여 동일하게 만들거나 제거하고 일방의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관계방식은 '불통'이다. 그러기에 쟁론의 특징은 '차이들과의 불통'이다. 원효의 화쟁은 쟁론의 불통을 이견의 소통으로 바꾸려는 방법이고 과정이며 결과이다.

원효는 불교이론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을 '만나게 하고 통하게 하는(會通) 데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 소통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 방법론은 '문(門) 구별'이다. 원효는 '문(門)'이라는 용어를 즐겨 채택하여 사상을 개진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하나는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견해·관점·이론·지평의 조건인과 계열'이다. 이견을 회통하여 쟁론을 화쟁할 때 채택하는 문의 의미는 후자이다.

'A 문(門)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되고 B 문(門)으로 보면 저런 뜻이 된다. 그러므로 모두 살려 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원효가 구사하는 화쟁 논법의 정형이다. 원효가 시도하는 문(門) 구별은 견해·이론에 대한



원효 스님의 진영. 1978년 이종상 화백이 그린 것으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 견해의 일방적 절대화, 갈등 유발 나라마다 김치 맛 평가 상이하듯 '견해 차이 인과' 파악해 풀어내면 서로 이해하고 발전하는 계기 돼

'조건인과적 이해'이다. 모든 현상은 '일정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이 인과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붓다의 연기(緣起) 통찰이다.

원효는 이 연기적 사유를 '견해·이론의 문(門) 구별'로 계승하여 쟁론의 치유와 소통에 적용한다. 견해의 문(門)을 구별하여 배타적 다층을 화해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시름한 김치를 두고 견해 다름이 벌어진다. 한국인 '김'은 '세상에 돌도 없는 진미'라고 군침을 흘리는데, 외국인 '올'은 '악취가 풍겨 차마 입에 넣을 수 없는 썩은 채소'라고 고개를 돌린다.

'김'은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올'은 '김'을 '야만인'이라고 경멸한다. '김'은 김치를 좋아하는 다른 한국인들을 불러 자기 견해가 옳고 '올'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올' 역시 김치를 혐오하는 외국인들을 불러 자기 견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김'과 '올' 모두 '좋은 맛'과 '싫은 맛'

을 직접 경험하고, 자기와 견해를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견해의 무모함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다. 김치가 맛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맛없다는 견해를 철회하든가, 맛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맛있다는 견해가 틀렸으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편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 팽팽히 맞서는 이 견해 다툼은, 급기야 두 사람의 관계를 심각하고 훼손한다.

그러자 '빙'이 다툼을 해소시키기 위해 '김'과 '올'을 불러 대화한다. '빙'은 같은 대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사람의 이견(異見)을 '조건 인과적'으로 설명한다.

"한국인 '김'은 오랫동안 누적되고 공유되는 한국의 식재료와 음식 맛에 익숙해 있고 감각과 신체도 그에 상응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올'은 시큰한 김치를 감미로운 진미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외국인인 '올'은 전혀 다른 식재료와 음식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니, 그의 상이한 환경과 경험 및 감각 조건이 원인이 되어 시큰한 김치를 악취 나는 썩은 채소로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과 '올'의 견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모두 살릴 수 있다. 굳이 옳고 그름을 다투어 한 쪽 견해의 일방적 승리를 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빙'의 말을 듣고 '김'과 '올'은 자신들이 '견해 차이의 조건 인과'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 결과 김치 맛에 대한 견해 차이를 동일화나 배제의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견해의 타당성을 무조건적·절대적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부당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김치에 대한 견해 차이를 승패의 다툼이 아니라 음식과 맛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심화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물질적, 정신적 현상은 조건 인과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한다. 아무런 조건 인과 없이 우연히 생기는 것은 없고, 일인 권력자의 뜻대로 조건 인과를 조작할 수도 없다. 인간사와 세계는 '조건 인과의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이다.

견해도 그러하다. 인간은 동일 대상과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수립한다. 각자가 처한 환경적 조건, 유전적 조건, 이익 관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를 발생시킨 조건 인과가 다르다.

이 점을 인지하여 조건 인과의 차이와 내용을 포착하려는 태도를 지니면, 상당수의 배타적 쟁론들은 해소되거나 조정된다. 특정 견해를 형성한 조건 인과의 특징과 타당성 정도에 대한 이해력이 커지는 만큼, 견해 차이의 상생적 상호작용이나 조정 가능성도 커진다. 그럴 때 견해 차이는 정복이나 소거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공존의 벗이 될 수 있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같지 못하고(如之者不如好之者),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같지 못하다(好之者不如樂之者)는 말씀이 있다. 유서(儒書)에서 만난 구절이다.

구차스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가 앞서 간다. 좋아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공부하는 것과 스스로 좋아서 공부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 좋아해서 하는 연구보다 즐기면서 하는 연구 결과는 더욱더 그 격차를 벌려 놓을 것이다.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하자.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는 곧 실증과 졸업을 몰고 온다. 좋아서 읽는 책이라면 어려운 페이지에서는 건너뛰게 되어 있다.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책과 사람이 들어 아닌 하나 되어 시간관념마저 잊게 된다.

삼천 배 정진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탈이 나고 중도 하차하게 되어 있다. 즐

한다. 아는 것은 좋아함만 못하고, 좋아함은 즐기는 것만 못할 테니까.

### 진리는 드러나 있다

중국의 선불교(禪佛敎)에는 큰 스승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뚝 솟은 이가 임제선사라 할 것이다. 우선 임제선사의 시원한 계승 하나 소개하겠다.

울고 그른 일 모두 다 알 바 없네 (是非非非都不知)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자연 그대로 인 걸 (山水水水任自閑)  
서쪽의 극락세계 따위 내게 묻지 말게 (莫問西天安養國)  
구름 걷히면 그대로가 청산인 것을 (白雲斷處有青山)

이 시(詩)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는 의식의 전환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본래의 근본 자리에서 보면 울고 그른 일도 없을 터이고, 자연 그대로가 보살

### 행복·자유는 버림·비움서 비롯되니 오늘을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 되라

기면서 절을 해야 한다. 기도 정진 또한 잘 짜인 시간표의 일정에 의해 법당을 드나들다면 습관적 의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즐기면서 기도 정진을 해야 한다.

참선 수행 또한 마찬가지다. 죽비소리 따위 맞춰 앉고 서기를 반복한다면 조신(調身)은 필지언정 조심(調心)이나 조식(調息)은 멀어져 갈 게 뻔한 일이다. 참선 정진 또한 즐기면서 해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치자. 글자 그대로 이런 행위는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신앙은 아닌 것이다. 일요일 교회에 갈 일이 즐겁고 사찰에 갈 일이 즐거워야 참 신앙인 것이다.

남녀 사랑에 있어서도 좋아하는 쪽보다는 즐기는 사랑이 더욱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좋아함은 상대적이지만 즐기는 것은 절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빈낙도(淸貧樂道)라는 말은 있지만 청빈호도(淸貧好道)라는 말이 없는 이치는 좋아함은 곧 싫어함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즐겨야 한다. 어깨동무하며 주먹나팔이라도 불며 오늘을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야

의 모습이며, 분별심을 일으켜 중생과 부처를 구분할 필요 없고, 사바세계 그대로가 극락정토임을 일깨우며, 구름 걷히면 청산(靑山)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남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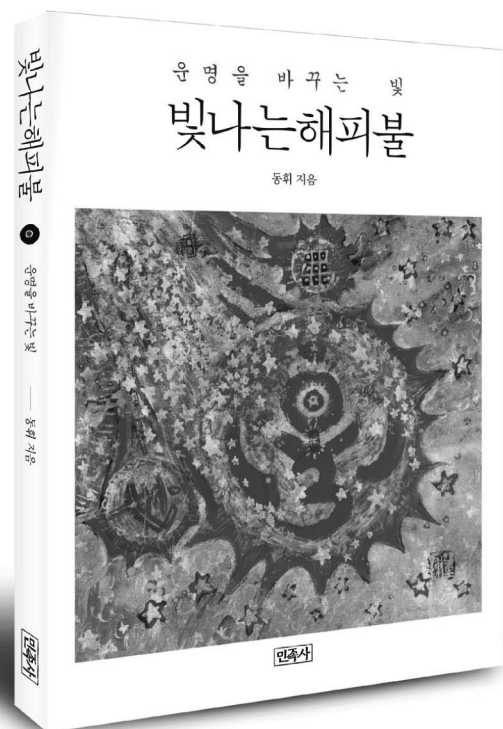
진리는 이렇듯 멀리 있거나, 숨어 있지 않는 것이다. 항시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 드러난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있다.

진리 또한 우리네 일상에 널려 있어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진리는 과대 포장해서 허공에 떠돌아 두지 말 일이다. 깊고 높은 곳에서 찾으며 헤매지 말 일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자갈처럼,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이웃처럼 널려 있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한 생각만 잡고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와 보살이요, 이르는 곳마다 극락정토가 아님이 없을 터이다.

우선, 쥐고 있는 것부터 놓아 버리자. 행복과 자유는 버리고 비우는 곳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텅 빈 충만

# 이제는 빛의 시대,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한 이들에게 보내는 동휘 스님의 빛나는 희망과 행복, 성공의 메시지



우리 모두가 빛나는 행복을 일깨워 주는, 동휘 스님의 만다라의 세계! 그 빛나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빛을 의식하자. 그냥 계속 햇빛, 불빛, 부처님을 생각하고 밝은 쪽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나 역시 출가 이전 어둡고 추울 때가 있었다. 나 자신이 빛으로 치유했기에 그 에너지의 힘을 정말 잘 알고 있다. -머리맡 등에서

## 운명을 바꾸는 빛 빛나는해피불

동휘 스님 글·그림 :: 208쪽 :: 값 16,200원 :: 변형 신국판, 울 컬러 :: 민속사 펴냄